

못된 것이 없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 부당하다, 이상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투덜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정당하며 합리적입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this service)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출12:25-26). 예식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바로 service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고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service입니다. 사람들은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 후에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 신자를 죽이고 성경을 불태우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요16:2).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닌 자신들이 정한 규칙대로, 멋대로 행하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합당한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합당한 섬김은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무엇을 줄 때 상응하는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통신 요금을 내야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fee를 내야 전문가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서비스 산업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일을 하든지 돈을 내든지 무엇을 해야 그에 따른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주인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그들의 노동이나 기술이란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사는 대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합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서비스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심지 않는 포도원과 우물과 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제사장 왕국이요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

](출19:6). 이외에도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받아 누렸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한 service(섬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호 합의 아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맹세를 율법에 기록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아멘으로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합당한 서비스(reasonable service)**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가 되시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신데 대해(엡5:2) 우리가 해야 할 서비스(service)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데 대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서비스는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서비스입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요, 성령을 주신 것 역시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나 은혜에 대한 값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바쳐야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헌신은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께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주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의 모든 것을 값없이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안 성도들이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부당하거나 터무니없는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으로도 이치에 합당한 요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합당한 섬김(reasonable service)]**이라고 말합니다.

합당한(reasonable)이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기독교는 근거없는 믿음, 맹신적인 믿음에 근거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보다 더 합리적인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합리적인 분은 없습니다. 믿음은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지극히 논리타당한 것이며, 합리적입니다. 아무리 따져 보아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할 수는 있어도 부당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역시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에 부합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성경이 일점일획의 오류없이 보존되었다는 것이 이성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로 삼으셨다면 그 구원이 절대 안전하다는 것이 이성에 부합하며, 타당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순투성이요, 엉터리로 만들어 버린 후에 ‘믿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요, 합리적인 분이시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제 누구와도 논리적으로 토론하시며, 그들의 주장을 무기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

가 (辯論).](사1:18). *let us reason together. 바울

은 회당에서 성경을 들고 언제나 변론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구약 성경을 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했습니다(행17:2, 18:4,14,19). 성경을 알고 믿는 이들은 역지를 부리는 이들이 아니라 지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1을 보겠습니다. [

가 (롬12:1).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는 이 부분은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는 “예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바른 예배,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 정의 내려 주는 구절로 인용되곤 했습니다. SERVICE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보다 번역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본문이 의미하는 정확한 의미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SERVICE(섬김)가 예배로 번역한다고 해서 완전히 오역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를 많이 남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란 인식과 믿음에서 헌신은 시작됩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몸에 대해 자신의 소유를 선포하실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인치심으로써 그 권리를 인치셨습니다. [

.(고후1:22). 인(印) 치셨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로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 영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

.(엡1:13-14). 여러분은 영화나 역사 드라마 등에서 농

장 주인이 소나 말의 등에 도장을 찍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누구의 소유인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란 사실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다. [. 가 (救贖) .](엡4:30).

성경을 통해 자신의 몸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지체란 사실을 아는 것은 복된 진리요,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런 진리의 지식은 성도들의 가치관,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행위로, 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영과 혼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은 정신으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영과 혼 못지않게 몸이 중요합니다. 몸의 행실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15-21을 보십시오.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몸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6:15)
-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6:19).
-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고전6:20A). *고전7:23참조.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자신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해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같이 로마서 12:1을 보십시오. [. 가

.(롬12:1).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가? 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섬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막10:45). 자신의 몸을 한 알의 밀알로써 죽는 것이었습니다(요 12:24). 바울 역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들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헌신이 바탕이 되지 않는 섬김은 주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와 몸의 관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동양 종교에서는 몸을 경시하는 것을 지혜로 여겼습니다. 금욕과 고행으로 몸을 학대하는 것을 깊은 수행의 척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은 끊기고, 끊고, 불로 지진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몸을 괴롭히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 받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한 그 죽음에 대한 진리를 믿을 때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 죄의 몸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영입니다. 둘째, 진리입니다. [.](요 4:24). 하나님은 참되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이 찾으시는 경배, 주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진리가 없이는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진리란 진리이신 주님(요14:6),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요17:17), 진리이신 성령(요일5:6)을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해야 합니다. 셋째, 헌신된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몸, 주님의 지체인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몸과 경배, 몸과 섬김의 관계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몸의 중요성을 매우 간과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전6:20b). 구원받은 성도는 몸이 매

우 중요합니다. 섬김은 기본적으로 몸으로 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섬김(reasonable service)는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기준, 찬양의 기준, 감사의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몸의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을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몸을 아끼고 보살핍니다. [

](엡5:29)란 말씀대로 사람들은 몸에 좋다면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몸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내 사랑의 기준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엡5:28). 핵심은 몸입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섬김입니다.

다시 로마서 12:1을 보십시오. [, 가 .](롬12:1). 여기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 **너희 몸을 거룩하게.** 우리 몸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세속의 종교인들은 고행과 금욕을 통해 몸을 확대하는 것을 경건이요, 거룩에 이르는 길인 줄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분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용도와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놓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의 용도를 주님께로 똑 떼어 놓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로서 주님을 위해 내어 주면 그 자체가 거룩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술 취함이나 방탕함에 내어 주지 않고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자신의 몸을 음행에 내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핵심은 자신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세상이나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가인처럼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희생물, 주님이 받을 수 없는 희생물을 드린 뒤에 주님을 향해 분노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없는 육신의 행위를 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율법의 의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엡5:10). 우리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가증이 여기시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받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서 받으실만한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골3:16).

• **너희 몸을 살아 있는 희생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셨듯이 우리 역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성령으로 살림을 받았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일5:12).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내어 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